광주 소상공인 매출 증가 '눈에 띄네'

통계청 '2019년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

2년 평균 매출 증가율 2% '7대 특·광역시 최고'

소상공인 수 9만7138개…3곳 중 1곳 도·소매

전남 22조3217억 2.5% 늘어 '9개 도 중 2위'

광주 소상공인들의 지난 2년 동안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산업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은 광주 85%·전남 88%로, 전국 평균 비중을 웃돌았다.

10일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광주 9만7138개·전남 12만5768개로, 모든 산업 사업체에 대한 비중은 각각 85.1%, 88.4%를 차지했다.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는 328만5574개로, 전체(387만4410개)의 84.8% 비중이었다.

광주는 비슷한 규모로 꼽히는 대전보다 인구는 적지만 전체 사업체와 소상공인 수가 더 많았다.

광주 사업체는 11만4143개로, 대전(11만648개)보다 3500개 가량 많았다.

소상공인 수도 광주(9만7138개)가 대전(9만4377개)보다 약 2800개 많다.

지난달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광주 143만6916명으로, 대전(144만9360명)보다 1만2000명 가량 적었다.

지역 소상공인 사업체에는 한 곳당 2명꼴(광주 1.9명·전남 2명) 종사자가 일하고 있었다.

광주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는 19만2858명으로, 전체 종사자 48만7364명의 39.6% 비중을 차지했다. 전남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은 45.4%(54만6104명 중 24만7737명)로,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 비중(36.9%)를 웃돌았다.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전국 소상공인 매출액은 2년 연속 증가해왔다.

광주 소상공인 매출액은 2017년 18조6045억원→2018년 18조8845억원→2019년 19조3435억원 등으로 늘면서, 이 기간 동안 연평균 2.0%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세종을 제외한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광주에 이어 인천(1.4%), 대전(1.0%), 부산(0.0%) 순으로 높았다. 서울(-1.2%)과 울산(-1.0%), 대구(-0.7%)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최근 2년간 전남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2.5%로, 전국 평균(0.7%)을 웃돌고 충북(2.9%)에 이어 9개 도(道)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전남 소상공인 매출액은 2017년 21조2547억원→2018년 21조8393억원→2019년 22조3127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지역 전 사업체의 2년 평균 매출 증가율은 광주 2.8%·전남 4.1%로, 소상공인 증가율(광주 2.0%·전남 2.5%)은 이를 밑돌았다. 2019년 기준 지역 소상공인들의 전 사업체 대비 매출 비중은 광주 17.4%·전남 12.5%로, 광주는 전국 평균 비중(13.6%)을 웃돌고 전남은 이보다 낮았다.

같은 해 광주 소상공인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도·소매업 사업체와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광주 도·소매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만7356개, 종사자 수는 5만1157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대비 각각 28.2%, 26.5% 비중을 차지했다.

숙박·음식점업 사업체 비중이 17.7%(1만7176개)로 뒤를 이었고, 제조업 비중은 8.1%(7890개)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순천 조례 '한양수자인 디에디션' 분양

101·125㎡ 340세대…교통·생활 인프라 탁월

(주)한양은 11일 '조례 한양수자인 디에디션' 〈사진〉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순천시 조례동 1519-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조례 한양수자인 디에디션은 지하 4층~지상 27층 5개동, 전용면적 101·125㎡ 총 340세대 규모다. 타입별로는 ▲101㎡A 74세대 ▲101㎡B 43세대 ▲125㎡A 131세대 ▲125㎡B 92세대다.

단지 인근 봉화로, 백강로, 순광로, 중앙로, 봉화터널을 통해 시·내외 접근이 수월하고, 순천IC와 동순천IC도 가까워 광역교통망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도보권의 왕조초를 비롯, 동산여중 등 학교와 조례동 학원가도 인접한 데다, 대형마트와 주민센터, 은행, 병원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 이용도 수월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340 펜트하우스 컬렉션'이라는 콘셉트에 걸맞은 공간설계도 선보인다. 남동·남서향 위주 동배치로 조망·일조권을 확보했고, 주차장은 세대당 1.86대에 모두 지하로 배치해 안전한 단지 환경을 조성한다.

내부를 고급스럽게 연출하는 3연동 현관중문과 하이브리드 쿡탑, 한샘 주방가구 등을 기본 제공품목에 포함시켰고, 발코니 확장시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및 고급시스템장, 거실·주방 우물천장 간접등 등도 기본 제공한다.

단지 어메니티(커뮤니티) 면적도 현행법 기준보다 3배 이상 많은 1000세대급 단지 수준의 규모를 갖출 예정으로, 순천 최초로 영화감상공간 '시어터룸'도 조성한다. 파티룸과 오픈키친, GX룸, 스크린골프연습장 등 다채로운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단지 중앙광장에는 캐스케이드(계단식 분수)와 수로,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이 조성되고, 플라워 테라스 가든과 아이들을 위한 미로정원, 유아놀이터, 담소원쉼터 등도 마련된다.

청약일정은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해당지역), 24일 1순위(기타지역), 25일 2순위 순으로 청약홈을 통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31일, 정당계약 기간은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다.

한편 견본주택은 순천시 풍덕동 303-1번지 마련됐으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방문 예약제로 운영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코스피 2600선 붕괴

1년 반 만에 최저…"악재 겹쳐 당분간 투자심리 위축 불가피"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저성장) 공포와 미국 증시 폭락 여파로 코스피가 10일 연저점을 뚫고 1년 반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수가 저점 수준에 근접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인플레이션 완화 등 뚜렷한 반등 요소가 없으면 증시 분위기 전환은 쉽지 않다고 진단한다.

이날 오전 11시1분 기준 코스피는 전날보다 39.44포인트(1.51%) 하락한 2571.37로, 장중에는 한때 2% 이상 하락해 2553.01까지 떨어졌다.

지지선으로 여겨진 2600선이 무너진 데 이어 지난 1월28일 기록한 기존 연저점(2591.53)도 단숨에 뚫었다.

장중 저가 기준으로는 2020년 11월20일(장중 저가 2538.68) 이후 약 1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은 낙폭이 더 크다. 이날 오전 장중에 831.59까지 내리며 2020년 11월13일(장중 저가 826.17)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인플레이션 압박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 긴축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로 이어지면서 전날 미국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폭락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주요 도시 봉쇄 지속도 경기 둔화 우려를 부추겼다.

여기에 개인이 빚을 내 투자한 주식의 반대매매 물량이 나오며 지수 낙폭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가 하락으로 신용거래 담보금 유지 비율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반대매매로 강제 청산된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주가를 끌어내렸으나 이날 장 초반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 우위를 보이기도 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 증시가 급락했고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도 크다"며 "이 문제들이 중첩되며 시장이 급락하고 있으며, 국내 신용 물량이 출회되면서 낙폭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필두로 시장에 여러 악재가 겹친 만큼 당분간 증시 투자심리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존 악재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중"이라며 "인플레이션 심화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봉쇄가 있는데 이 두 악재가 언제 종료될지 예측이 어려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600선 이하는 과매도 국면이고 충분히 저점 매수 구간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반등하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해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봉쇄가 완화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JB금융그룹 '탈석탄 금융' 선언

JB금융그룹(회장 김기홍·사진)과 모든 계열사는 최근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다짐했다고 10일 밝혔다.

'탈석탄 금융' 선언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금융 실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선언을 계기로 JB금융그룹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자금조달)에 참여하지 않으며, 같은 목적의 특수목적회사(SPC) 발행 채권 및 일반 채권에 대한 인수를 전면 중단한다.

이번 '탈석탄 금융 선언'은 JB금융그룹 내 전 계열사를 포함한 선언으로, 올해 2월 초 발표한 'JB금융그룹 탄소중립(Net-Zero) 목표 선언'에 이어 ESG 선도 그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JB금융그룹의 ESG경영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

JB금융그룹은 지난해 ▲NZBA(Net=Zero Banking Aliance) ▲TCFD(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에 가입하기도 했다.

또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에서 요구하는 필수 범위보다 넓은 자산 범위의 금융 배출량을 측정해 탄소중립(Net-Zero) 목표를 수립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JB금융그룹은 이번 '탈석탄 금융 선언'을 계기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대출·투자 등 지속가능금융 확대를 통한 ESG경영 실천을 이행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팔라고 할 때 팔 걸

비트코인 4000만원선 급락

10일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급락하며 4000만원선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5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4036만4000원으로, 24시간 만에 10.06% 내렸다.

비트코인이 4000만원까지 내려온 것은 지난해 5월 대폭락 직후인 7월26일로부터 1년9개월여 만의 처음이다.

같은 시간 빗썸에서도 10.34% 하락하며 4012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최근 비트코인이 동조하는 뉴욕 증시가 간밤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저성장) 공포 때문에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3대 지수 중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4.29% 떨어졌다. 52주 전 최고치와 대비하면 28%나 하락한 수준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역시 종가 기준 지난해 3월31일 이후 처음으로 40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이에 미국에서도 한때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7월 말 이후 처음으로 3만달러 선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

국내 시가총액 규모 2위인 이더리움도 10%대로 하락하며 업비트에서 한때 296만8000원까지 떨어져 지난 2월 25일 이후 2개월여 만에 300만원선을 밑돌기도 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96.56 (-14.25)
↓	코스닥	856.14 (-4.70)
↓	금리 (국고채 3년)	3.046 (-0.016)
↑	환율 (USD)	1276.40 (+2.40)

5·18 영령 기리며 광주은행 송종욱(오른쪽) 은행장은 10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5·18기념재단을 찾아 5·18 공익통장 '넋이 예·적금'의 판매 수익금 2000만원을 지난해에 이어 기부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인 2020년 선보인 '넋이' 상품은 예금 6960좌(1591억원), 적금 9776좌(266억원) 가입했다. 〈광주은행 제공〉

사학연금 정규직 신입 채용 '지역인재 30%'

23일까지 지원 접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오는 23일까지 2022년도 상반기 정규직 신입직원 지원을 받는다.

올해 사학연금은 사무행정 부문 채용대상의 30%를 광주·전남 지역인재로 채울 방침이다.

정규직 채용 규모는 21명이다. 사무행정 12명, 회계 4명, 안전 1명, 전산 4명 등으로 나뉜다.

신입 직원 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심으로 성별·연령·학력·출신학교를 따지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이 원칙이다.

사학연금은 사회 형평적 채용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자별 우대 가점을 적용한다.

특히 본사 이전 지역인 광주·전남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를 위한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사무행정 채용 분야에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채용 목표는 30%이다.

채용공고는 사학연금 홈페이지(tp.or.kr)와 기획재정부 잡알리오(JOB-ALIO), 취업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학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입사 지원은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채용 홈페이지(tp2022.recruiter.co.kr)에서 할 수 있다.

채용 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1차~2차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8월1일에 임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최종합격자는 수습 3개월 동안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정규직으로 임용된다. 지난해에도 이러한 수습과정을 거쳐 100% 정규직원으로 채용한 바 있다.

사학연금은 지난 2017년부터 NCS기반 채용을 도입해왔다. 2018년에는 '편견없는 채용, 블라인드 채용 공공부문 우수성과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